

P실무 SF소설

기억 거래소

2048년 인류는 기억을 추출하고,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. 기억추출기의 발명 이후 기억은 상품이 되었고, 경험은 화폐가 되었다.

알람이 세 번 울리고 나서야 눈을 떴다.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보다, 또 다른 기억으로 접속하는 감각에 가깝다. 창문 밖은 잿빛, 2년 전 그날도 이런 날씨였었나?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아니, 정확히는 흐릿하다. 그날 기억을 떠올리려 할수록 머리가 지끈거려온다.

나는 기억거래소에서 일하는 기억추출관이다. 기억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인간의 진실이 얼마나 쉽게 데이터로 바뀌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. 타인의 기억을 다루지만 정작 내 기억은 구멍 난 서류처럼 여기저기 비어 있다.

1. 일어나서 창밖을 본다.

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니 회색빛 도시 위로 광고 드론이 떠다닌다.

-기억 거래소, 더욱더 완벽한 당신의 삶을 위하여 지금 예약하세요.

익숙한 멘트가 반복 재생된다.

2. 방 안을 둘러본다.

방 안은 옷과 종이들로 어지럽혀져 있다. 아버지가 실종되고 1년간 온라인과 여러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올려왔으나, 작년부터는 인쇄물로 실종전단지도 만들어 부착하고 있다. 그 외에도 아버지를 찾아온 흔적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있다.

3. 방 밖으로 나간다.

거실로 나서자, 부엌에서 익숙한 냄새가 난다.

-너 오늘 휴가 아니니? 지금 일어나도 되는 거야?

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. 아버지가 실종된 이후 1년을 울음과 절망 속에서 보내다가, 그다음 1년은...

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가는 법을 택한 사람의 목소리였다.

-네 맞아요. 근데 오늘은 아버지 사라지신 지 2년째 되는 날이잖아요. 밥 먹고 이따 볼일 좀 보고 올게요.

-너 또 경찰서 가려는 거 아니지??

예상대로였다.

-아니에요. 친구 좀 만나고 오려고요. 다녀오겠습니다.

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.

집 밖으로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.

-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...

S시 경찰서는 집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. 똑같은 대답을 들을 걸 알면서도 자꾸만 이곳으로 향하는 내가 답답하다. 이 길을 몇 번이나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. 문을 열자마자 담당 형사가 나를 보자마자 피곤한 표정을 짓는다.

저들은 내 심정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.

-형사님 오늘이 저한테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?

내 목소리는 떨렸다.

-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. 하... 오늘은 저희도 바빠요. 이만 돌아가 주시죠.

-저희 아버지가 실종된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. 선생님들께서 기다리라고 하신지도 벌써 2년째고요.

-저기 혹시 대한민국에 한 해에 몇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지 아세요? 하루에 300건이 넘습니다. 저희 서에는 또 얼마나 접수될 것 같아요?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

-이해합니다. 근데 정말 아무런 진전도 없나요? 2년이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.

-이해하신다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좀 기다려주세요. 창수야 이 분 밖으로 안내해드려라.

그들을 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내 속은 타들어 가는 것 같다.

-정 그렇게 급하면 본인이 직접 찾아볼 것이지.

담당 형사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.

-방금 뭐라고요?

-그렇게 급하면 직접 찾아보시라고. 왜 절대 가출하실 분은 아니라면서요, 그러면 혹시 모르죠. 주변에 있을지도

-아이...선배 또 그러신다. 저랑 같이 갈게요. 선배 이분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!

경찰서 밖으로 나가는 중 창수씨가 얘기했다.

-너무 신경쓰지 마세요. 저희도 참 답답해서 그렇습니다. 우선은 돌아가시죠.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생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

그의 선의가 담긴 위로마저 내게는 변명과 조롱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. 근데 잠시만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?

-저기 혹시, 사건 관련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?

-에이...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주변 CCTV를 통해 그 시간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사해 봤는데 사건에 도움이 될 법한 증언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. 일단 돌아가시죠.

도현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.

경찰서 문밖을 나서며 내가 나서서 무엇이랄도 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에 휩싸였다. 서둘러 걸음을 옮겨 집에 도착한 나는 집을 먼저 수색해 보기로 결심했다.

집 문을 닫자마자, 적막이 한 덩어리처럼 내려앉았다.

-이번엔 반드시 단서를 찾아야 한다.

아버지가 사라진 지 2년.

경찰도, 어머니도, 주변 모두가 포기한 사건.

찰나의 침묵 속에서, 도현의 내면에서는 어떤 확신 같은 게 끓어오르고 있었다.

문을 열자 어지럽혀진 책상과 바닥, 짐작 가능한 잡동사니들 사이에서
"아버지의 흔적"만이 유독 선명해 보였다.

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, 책상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.

그리고 마침내, 세 가지 물건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.

서류철, 기억카드, 영수증.

세 가지 단서가 나란히 놓이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.

마치 퍼즐 조각이 “맞춰질 준비는 되어 있다”고 말하는 것처럼.

그

내 심장은 불안과 확신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렸다.

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모든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직감이 들었다.